

### 성리학적 이상의 실천가 재조명 정치구조의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조광조》



정두희 지음  
아카넷/A5신/308면/18,000원

사회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해야 할 것인가? 비록 시대가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겠지만 조광조의 실천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정두희 교수의 《조광조》는, '실천적 지식인의 삶,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라는 부제에서 보듯, 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이 취약해진 현실상황에서 권력기반이 없이 현실정치에 들어가 성리학적 이상을 실천하려고 치열한 활동을 벌인 조광조의 삶과 사상을 조명한 책이다.

조광조에 대한 기록은 그다지 풍부하지 않다. 그래서 저자는 실록의 기사를 정밀하게 분석해 조광조의 실천적인 삶을 조명하고자 했다. 흔히 인물연구는 개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는데 비해, 이 책은 당시의 정국, 정세의 맥락에서 조광조의 삶을 추적하고 있다. 정치 구조 속에서 조광조의 삶을 검토함으로써 훨씬 객관적인 접근과 평가를 가능케 한다.

조광조가 살던 시기는 세조대와 연산군대를 거치며 왕조의 이념적 기반이 흔들리고, 중종 반정 이후 정치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소릉 복위로 세조대의 정치적 유산이 일단 청산된

후 관직에 나온 조광조는 연산군대의 정치적 유산을 청산하는 운동을 주도해간다. 조광조는 사간원과 홍문관에 봉직하면서 폐비 신씨의 복위 논쟁과정에서 정국의 중심인물로 인정받았고, 정몽주·김광필의 문묘배향논의를 거치며 새로운 학문과 정치를 표방하는 세력의 상징적 존재로 부각됐다.

조광조는 소격서 폐지를 통해 성리학 이념의 방향을 제시하며 정치적 영향력도 대폭 확대됐지만, 군자 소인에 관한 현실적인 정치논쟁을 거치며 도덕적 우월성은 정치상황에 따라 상대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켰다. 조광조는 마침내 대사헌이 됨으로써 현실정치의 전면에 나서 연산군대의 정치 유산을 청산하는 구심점이 된다. 그리하여 조광조는 현량과 시행으로 본격적인 권력투쟁의 한가운데 서게 됐고, 정국공신을 개정할 때 반대파의 쿠데타로 그의 이상은 좌절됐다.

위의 내용은 평가가 간략히 요약한 것이지만, 이 책에서는 연산군대 정치적 유산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공신세력과의 갈등, 중종과의 대립 등 정치현실과 조광조의 이념적 지향이 훨씬 자세히 분석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조광조가 '도덕적인 교사'에서 '현실정치가'로 변모될 수밖에 없었고, 비록 현실 앞에서 그의 이상은 좌절되지만 조광조의 이념적 방향과 실천적 자세는 조선의 유교문화가 독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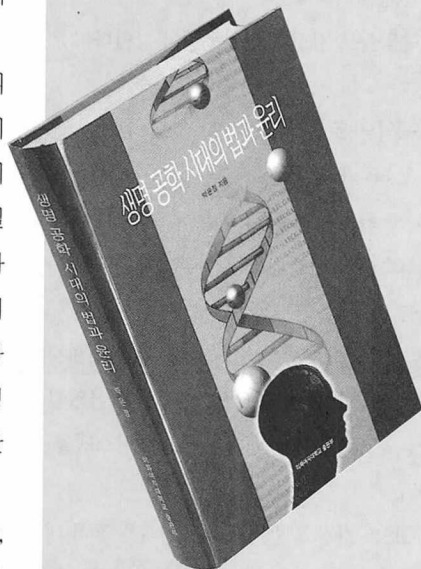
인류의 역사에서 이상과 현실, 도덕과 권력, 학문과 정치가 완전히 일치된 적은 없고 일치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을 이상 가까이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권력이 도덕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치를 학문에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역사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학문과 경제를 겸비하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정치를 담당했던 조선시대는 새롭게 평가될 것이다. 그럴 때 학문과 경제의 일치라는 성리학적 이상의 단초를 연 조광조의 실천적인 삶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 김향수

동덕여대 인문학부 교수. 논문 <16세기 사림의 성리학 이해> <선조 초년의 친구 갈등과 정국동향> 외.

### 생명공학의 윤리적·법적 문제 다뤄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현안 비판

《생명 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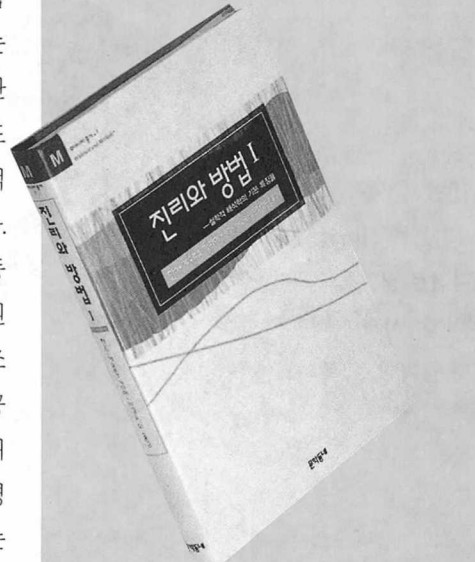


박은정 지음  
이화여대출판부/A5변형/686면/23,000원

호기심 많은 인간들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신세계는 한편으론 경이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론 혼란스럽다. 그러나 과학의 진보는 역사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사실 과학의 역사는 금기를 파괴해온 도전의 역사다. 도덕과 윤리는 인간들이 경험한 과거의 현재형이다. 현재의 사회적 조건을 변경하는 과학의 발전은 항상 기존의 도덕·윤리와 대립적인 상황에 설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에 따른 하부구조의 변동은 도덕·윤리·법·가치 등으로 대변되는 상부구조를 변화시킨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만들면서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극복하는 역사적 변동과정이다. 하부구조를 조직하는 새로운 방식이 현실화되면, 그것에 맞는 새로운 도덕과 윤리가 성립하고, 또다시 새로운 방식이 출현하면, 과거가 된 도덕과 윤리는 다시 변경되거나 배척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과거의 도덕과 윤리를 무력화시키는 현상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비방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던 것도 사실이다.

## 미학의 주관화 비판한 예술의 존재론 미적 의식과 역사의식의 소외 비판해

### 《진리와 방법 I》



한스-게오르크 가다머 지음/이길우 외 옮김  
문학동네/A5신/336면/15,000원

현대철학사의 핵심적인 논쟁에 수많은 불씨를 던지며, 세계 각국의 독자들에게 이해되고, 달리 이해돼 오기를 어언 40년, 이제 《진리와 방법》이 — 부분적으로나마 — 우리말로 옮겨져 비전공자도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학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책은 《진리와 방법》의 완역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다머가 미학의 주관화를 비판하고 예술작품의 존재론을 전개한 제1부의 번역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어떤 구체적인 미학이론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면, 이는 “빚나간 기대”다. 가다머 자신이 명백히 밝혔듯 《진리와 방법》은 “과학적 의식을 향해 자신의 한계를 시인하라고 하는 강렬한 경고”며, 동시에 방법적 의식의 한계의 “외부에”, 또는 “그것을 넘어” 존재하는 근원적 진리 경험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이다. 즉 단순히 과학내지 방법에 대한 이론 내적 비판이 아니라, 방법적 의식의 기초가 됐던 근대 주관주의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이를 가다머는 근대가 겪은 두 가지의 치명적이었던 경험, 즉 미적 의식의 소외와 역사의식의 소외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전개하는데, 이는 각각 《진리와 방법》의 제1부와 2부의 내용을 구성한다.

이 책은 그 중 전자를 번역한 것으로, 그 주된 논지는 예술의 영역에 나타난 주관주의, 즉 “미학의 주관화”와 “미적 의식의 추상작용”에 대한 비판을 통해 예술작품과의 대화가 허용하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리경험에 대한 존재론적 정당화다. 그리고 그 방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예술(작품)의 진리라는 “공을 잡을 수 있음은 그대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너를 넘어서 있는 존재 자체의 계기며, 따라서 예술작품의 경험이라는 것도 주어진 미적 대상에 대한 미적 의식의 조작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론적 생기다. 잘 알려진 바 《진리와 방법》의 원래 계획됐던 제목은 《이해와 생기(Verstehen und Geschehen)》였다. 즉 이 책의 핵심적 의도는 이해가 주어진 대상에 대한 주관성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생기며, 이 생기는 “이해되는 것의 존재에 귀속”함을 밝히는 것이다. 《진리와 방법》은 근대의 의식철학이 제공한 주관주의적 세계상을 넘어서는 존재사유의 가능성을 묻고 대답한다. 가다머는 이렇게 묻는다: “이제까지 닫혔던, 주관주의적 사고를 뛰어넘는... 존재의 경험”이 어떻게 가능한가?

일별한 역서는 옮긴이들의 오랜 노고를 반영이라도 하듯 깔끔하고 명료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가다머의 존재사유로 다가갈 수 있는 훌륭한 통로를 열어준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번역의 텍스트가 가장 많이 읽히는 제4판이 아니라, 1990년의 전집본 1권이라는 점이다. 전집에서는 2판과 3판의 서문, 후기, 부록, 추가 설명 등이 전부 삭제돼 2권으로 옮겨졌다. 이런 이유로 《진리와 방법》의 기본적인 구상을 이해하기 위해 꼭 읽어야만 할 2판 서문이 번역본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 판을 거듭하는 호응을 얻으면서, 이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고 이길우 교수의 영전에 이 훌륭한 책을 바친 옮긴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

### 김창래

고려대 철학과 교수. 저서 《Sprache als Vermittlerin von Sein und Seiendem. Die Logik des Darstellens bei Hans-Georg Gadamer》 외.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생명공학을 둘러싼 윤리적·법적 논의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인간의식이 두 가지 상반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극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 시간적 차원에서 이미 확정돼 있는 경험에 기초해 과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열어두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다. 또 행위주체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주관적 의사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고, 인류에게 닥쳐올 객관적 결과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다. 생명공학기술에는 위험과 이익이라는 양면이 동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간차원과 주체차원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논의의 강조점이 다르다. 과거와 미래의 대립구조는 생명공학의 적용을 둘러싼 윤리·도덕적 논의에 그대로 반영돼 있고, 개체와 전체의 대립구조는 생명공학기술의 개인적 이용의 한계에 관한 법적 논의에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대립적 태도는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화해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양자의 태도는 둘 다 인간에게 기여했다. 당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충격 때문에 화해가 쉽지 않겠지만, 양쪽의 대립적인 가치진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서로 화해하게 될 것이다.

지은이는 생의학과 인간유전공학 분야의 기술적 발전 및 인간생명에 대한 기술적 개입과 조작의 윤리적·법적 문제와 관련해 최근에 발표했던 글들을 묶어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에 담았다. 책의 제목이 말하고 있듯, 지은이의 논의 저변에는 생명공학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깔려 있는 듯하다. 지은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관점에서 생명공학의 발전방향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 책은 윤리적·법적 차원에서 생명공학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강희원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저서 《노동법》 《노동철학》 《녹색법학》 외.